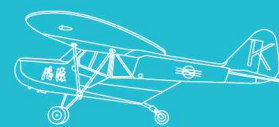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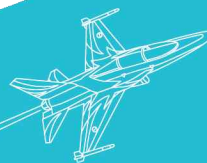


우주강국의 꿈, 날아오르다 연합뉴스TV 스페셜 인터뷰

(2023. 3. 7.(화))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



1. 정부의 강한 의지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천시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우주항공청의 개청이나 규모, 위치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우리 사천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11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추진단이 마련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여,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임시 청사 및 청사 후보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정부에서 최적의 위치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와 연계된 도시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도시발전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얼마 전 출범한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우주 경제 로드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주 경쟁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주항공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KAI 등 6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됐는데, 2025년 2월까지 우주항공청의 출범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신사업에 대한 구상과 자문 등의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천에서는 위성제조혁신센터 구축과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항공 관련 중요한 사안이 진행 중인 만큼 실무추진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항공 관련 인프라가 집중되며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를 통해 사천시 발전에 기대되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나사입니다.

이러한 위상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우리 시에 개청된다면, 미국 시애틀에 버금가는 우주항공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 지정이 더해짐에 따라 개발, 제조, 사업화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인데,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향후 교통량 및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국도 77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천 항공산업대교 건설 등 선제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우리 시로 이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해져 더욱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